

선운사에 1500년 이어온 전통을 또 다시

고창 선운사, 9월 24~ 25일 선운 문화제... 보은염 이운식 등 열려

가을 단풍이 무르익고 붉은 꽃무릇이 계절을 붉게 물들이는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는 지역민들과 나눔 공동체 실현을 모색하고 시와 음악, 감동이 넘치는 문화축제가 마련된다.

9월 24~25일 열리는 선운 문화제는 '선운,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를 꿈꾸다'를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보은염 이운식'은 김단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1500년 전부터 해마다 선운사에 '보은염(報恩鹽)'을 공양했던 의식을 현대적으로 되살렸다. 음악 공연에서는 성악가 정윤 스님, 트롯가수 원근, 윤수일 밴드가 깊이 있는 음악을 선사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고창농악보존회는 설장고, 고깔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또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이 펼치는 공연도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또한 문화제 기간 동안 전통차(선운사

차) 시음회, 학술 대회, 지역민이 직접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등도 열린다.

행사 둘째 날인 25일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장기를 선보이는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B-Boy공연과 국악 판소리 공연도 함께 열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를 선보인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선운 문화제는 선운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적 가치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민들과 하나돼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솔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선운사는 김제의 금산사(金山寺)와 함께 전라북도의 2대 본사다. 특히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불교문화재들을



선운 문화제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통한 화합을 도모한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의 모습.

보유하고 있어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다. 특히 눈 내리는 한겨울에 붉은 꽃송이를 피워내는 선운사 동백꽃의 자태는 시인·묵객들의 애찬과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도솔산은 선운산

(禪雲山)이라고도 하며, 조선 후기 선운사가 번창할 무렵 89개의 암자와 189개에 이르는 요사(寮舍)가 산중 곳곳에 분포돼 불국토를 이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광역시 201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장기기증 공감대 확산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와 장기기증 단체가 모여 장기기증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광주광역시, 장기기증재단, 대한적십자사 현혈의 집,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조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전대병원 장기이식센터와 공동으로 '2011년도 현혈릴레이 및 장기기증등록 캠페인'을 8월 30일 광주광역시청사 안에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광주지역의 장기기증단체와 광주시가 연합으로 광주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장기기증운동과 의료복지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진행한 김인숙 사무국장은 "행정당국과 사회단체, 병원들이 연합해 장기기증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과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선덕사, 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새출발

기도입제 및 주지 이취임식

오랜 기간 행법 스님이 만들어온 광주도의 대표적 포교도량인 선덕사(주지 효광)가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선덕사는 대법당에서 '선덕사가 만들어가는 108일의 생명평화이야기'라는 기도입제와 동시에 새로운 주지 이취임식을 9월 3일 봉행했다.

오랜 병고에 시달린 행법 스님이 인드라마생명공동체에 사찰운영을 맡기면서 시작된 이번 이취임식은 불공의식에 이어

현판식, 선덕사 연혁 및 경과보고, 행법 스님 답례말, 신임 주지 효광 스님 인사말,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안대표인 도법 스님 법문, 생명평화 100대서원 절명상 등이 진행됐다.

선덕사는 향후, 생명평화 108기도와 동시에 매주 일요일 실상사의 강사스님들과 NGO단체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무 응묵 스님은 간담회를 통해 "선덕사는 향후 생명평화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선암사 때어난 인기 '홍역'

전남 순천에 자리한 천년고찰 선암사(仙巖寺)가 때어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8월 24일 방송된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최고의 유적지로 선암사를 꼽은 것. 28일 선암사 종무실 관계자는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인 25일 아침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돼 접속이 안 됐다"며 "그 이후로 문의전화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암사 종무실에는 하루 30~50통의 문의전화와 쇄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템플스테이' 예약도 밀려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예불 의전팀 '불일회' 발대식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은 대법당에서 제1기 불일회 발대식을 8월 29일 봉행했다.

불일회는 '날마다 부처님날'이라는 뜻으로, 삼계선원 신도 30인으로 구성된 의전팀이다. 이들은 매일 오전 사시예불에 동참해 예불공양을 올리는 것은 물론, 길상사의 대내외 행사 및 법회의 선두에 서서 타의 모범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주지 혜수 스님은 "모든 의식에 동참해 여법한 수행모임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5)333-8202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젊은 인재 우뚝 설 수 있게 돕고 싶어"

김귀경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장

부산에서 우바이 김귀경(63. 불명 수현·사진) 씨를 부르는 이름을 짐작하면 열 손가락이 부족하다.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장 급경구가정지원센터장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당연직 상임부회장이자 前 사무총장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 백광 대표 등 불교계 뿐 아니라 부산의 정치경제 문화 복지 등 수심여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 이사장은 감투를 싫어한다.

"어깨가 무거워 당장이라도 모두 내려놓고 훌쩍 산사로 떠나고만 싶죠. 하지만 6살 때 계를 받아 불교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지금의 김귀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30여 년 전 김귀경 이사장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사상 최초의 여성회장으로 2대에 걸쳐 연임한다. 그야말로 열정적인 청년만해였다. 김 이사장은 당시 만해불교대학장을 지내며 부산 전역에 27개 지회를 육성했다. 동시에 부산불교신도회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불교아카데미를 운영, 6기까지 64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불교지도자포럼,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등 재가불자단체 창립의 숨은 공로자이기도 하다.

그녀가 이토록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던 이유는 단 하나. 부산의 불교계 단체들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이 불교용품점 백광이다.

"백광을 운영하면서 점차 나이가 들었고,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평생을 모시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때 노인 병원을 가보니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요양원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양에서 최근 문을 연 부산 기장군 소재의 선양시니어빌리지는 실제 자신이 들어가 살 곳이라는 생각으로 지었다. 실제로 김 이사장은 4~5일간 숙식하며 몸소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그녀는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 속에 등장하는 미국의 노인요양마을 휘트니스센터를 꼽는다. 이곳은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나, 나이가 들어 외롭고 힘든 이들이라면 누구나 모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이다.

"몇 일 전 설악산 봉정암 오르는 길에서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이를 헤아려보니 50명은 족히 넘었어요. 즐거움도 잠시, 얼굴값을 단단히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2년 후면 65세 노년층에 속하잖아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젊은 불교인들이 마음껏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싶습니다."

30대의 청년 만해 김귀경 이사장은 평생 부처님 일에 몸 바쳤고, 어느덧 6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꿈을 좇아 살아왔지만, 교계의 내일을 열어야 할 젊은 여성 인재가 없어 가슴이 아프다.

"올 초 회장 소임을 맡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여성단일조직 중 가장 탄탄한 단체입니다. 내년부터 교양강좌 및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준비중인 만큼 3~40대는 물론 20대 젊은 불자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자부심은 부산에서 지켜야 하니까요." 박지원 기자

대구 법왕사 제22회 백고좌법회 봉행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제22회 법왕사 백고좌 법회를 8월 31일 봉행했다. 100일간 100명의 고승을 초청해 법문의 자리를 여는 백고좌법회에서 조계종 원로 의원 도문 스님이 입재법문을 진행했다.

신라 진평왕 때 시작된 백고좌 법회는 역불정책이 시행된 조선시대 이후 백이 끊어졌다. 법왕사가 지난 1994년부터 백고좌 법회를 고증해 다시 실시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선암사 재적승려 분한신고

귀의 삼보하옵고

오랫동안 재적승 승적정리가 이행되지 못하여 종무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 제29대 주지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하오니 재적스님들께서는 전일 동참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승려는 재적승의 자격이 중지됨은 물론 주지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1. 승적원부 (총무원 발행)
2. 이 력 서 (사진 부착)
3. 건당확인서 (선암사 합동 건당자에 한함)

신고기간 : 2011년 8월 1일 ~ 9월 30일

접 수 처 : 선암사 종무소

문 의 : 061)754-5247, 061)754-595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경담